

최근 북미 및 유럽지역의 테러리즘 동향연구: 2012-2017

박기쁨* · 이창한** · 유효은***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확실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향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테러리즘, 테러리즘추세, 북미·유럽지역 테러리즘, 복합테러, 폭탄 테러리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의 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I. 서 론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차량테러 및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럭테러,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기난사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테러리즘 사건은 뚜렷한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테러리스트 및 단체의 요구조건도 명확하게 밝혔지만 오늘날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며 요구조건은 물론 정체조차도 밝히지 않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강영숙, 2016; 박재풍, 2011). 특히 북아메리카 및 유럽 등지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테러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테러리즘 공격유형, 수단의 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유사성을 보이는 듯하다(Cordesman, 2017).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및 201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역시 인구 유동성과 밀집도가 매우 높은 장소인 극장, 공항, 지하철역, 카페, 스타디움(stadium)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수반하였다. 특히 파리테러¹⁾는 인질극, 자살폭탄테러 그리고 무장공격을 혼합하여 공격하였고 가능한 대규모의 인명을 살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최근

1) “프랑스 파리 최악 연쇄 테러…현재까지 150여명 사망”. 경향신문. 2015.11.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4110113)

테러리즘의 동향이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성 및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만의 표출이 테러로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윤영, 2016; 김응수, 2015; 이승근, 2016). 이러한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 및 국내 위협요인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선행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테러리즘 연구는 대부분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조운오, 2017). 따라서 테러리즘 추세변화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테러리즘 동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²⁾ 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김응수, 2015; 윤민우, 2014; 허경미 2016). 요즘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형태가 여러 방면에서 ‘뉴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GTD 데이터 분석과 사례분석만으로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보다 한국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례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유형을 파악하여 추세를 분석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2) Global Terrorism Database (<https://www.start.umd.edu/gtd/>) 참조.

Ⅱ. 이론적 배경

1. 테러리즘 개념의 변화

1) 테러리즘의 의의

2001년 알카에다 조직에 의한 9·11테러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공격은 확산되고 있다(Cordesman, 2017). 그러나 테러는 복잡한 요소들이 뒤엉켜 있어 일반적인 범죄나 게릴라, 전쟁과 완벽하게 분리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는 실정이며(강영숙, 2016), 민족자결권의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테러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Ahn, 2014).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민족자결권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만 테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그 입장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국내와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군사적 공격, 국지도발 위협과 사이버 공격도 테러에 속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Ahn,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강제행위를 비롯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임을 알 수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6).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³⁾」 제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명의 살해 및 위협 및 항공기와 선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테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받아들여지게

3)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하는 방법 중 무차별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강영숙, 2016),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목적 등 어떤 종류의 목적을 갖고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테러리즘 특징 변화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명인 David Rapoport(2004)는 현대 테러리즘을 4가지의 물결(wave)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 물결은 1878년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이익을 위한’ 공격으로 주로 고위층에 있는 자들을 암살하였다. 두 번째 물결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반식민주의를 기초로 하여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을 대상으로 공격하였다. 세 번째 물결은 신좌파에 의해 1960년대부터 고위층 암살로 유형화되며, 첫 번째 물결과는 달리 고위직이 테러리스트에게 해로운 정책을 시행한 경우 대상이 되는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강욱·전용태, 2012). 마지막은 1979년부터 시작된 종교적 물결에 의한 테러이며, 9·11 테러도 이에 해당된다(Kaplan, 2011; 강욱·전용태, 2012).

따라서 뉴테러리즘은 “중전의 테러리즘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적 무차별 공격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열, 2015). 뉴테러리즘은 9·11테러를 기점으로 그 이후 발생한 특정 유형의 테러리즘을 지칭한다.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경찰대학, 2009). 첫째, 테러집단의 목표나 요구조건이 불분명하여 추적 및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둘째, 불특정다수를 공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가 대규모화된다. 셋째, 생화학무기 혹은 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고효율적 무기를 활용한다. 넷째, 단일화 할 수 있는 테러조직이 아니라 초국가적 테러리스트의 활동으로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테러현장이 생중계되며 공포의 확산을 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이상열, 2015).

2. 북미·유럽지역 테러리즘과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차이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는 중동지역이 있다(조성택, 2010).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민족분쟁으로 시작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화약고로 불릴 만큼 중족간 분쟁 및 정치적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조성택, 2010). 또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는 2001년 10월 9·11 테러에 대한 대응

으로 발생한 미국과 연합군의 대 탈레반 전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다(윤민우 · 김은영, 2013). 이렇듯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우리가 흔히 뉴스로 접하는 북미 및 유럽지역의 테러리즘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크게 테러발생 원인과 공격대상유형에서 구분 가능하다.

1) 테러리즘 발생원인의 차이

중동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얽혀있는데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개입, 그리고 이슬람교에 존재하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조성택, 2010). 그 중 이스라엘 건국으로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이슬람계 테러리즘 집단이 자행하는 테러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택, 2010). 이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의 테러리즘에 관한 사례연구 및 보고서들은 지난 10여 년간 테러리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파슈툰 민족 문제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의 마약생산 · 거래 문제, 그리고 시골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치안 능력의 부재현상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윤민우 · 김은영, 2013). 즉,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종교적 · 정치적 · 사회적 원인들이 모두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단순히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나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원인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9·11테러 발생 이전에는 이슬람교에 기반한 테러리즘 조직의 전략이 기존에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상주하는 연합군에 대한 테러리즘 공격이 주를 이뤘지만 9·11테러 이후, 전 세계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것이 테러리즘 발생의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조성택, 2010). 특히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과 같은 중동 테러집단은 무슬림 이민2세대 3세가 서구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을 이용하여 자생적 테러리즘을 부추긴다(정육상, 2015). 이들은 북미 및 유럽지역에 만연한 무슬림 사회에서 테러와 이슬람근본주의에 대한 교육의 부재 및 중동테러집단의 선동방식의 확장으로 인해 이슬람 청소년들에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게끔 한다(박철현, 2010; 정육상, 2015). 이러한 종교적 유발요인들이 자생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 불만으로 인한 활동이 테러리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승근, 2016).

2) 테러리즘 공격유형의 차이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동 및 이슬람이 국교인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대상 중 경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Cordesman, 2017). 2015년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35%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45% 역시 경찰이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다(Cordesman, 2017).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5%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 평균(17%)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 발생한 공격 중 29%가 경찰이 대상이었으며, 그 다음 27%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

반면, Cordesman(2017)의 보고서에 제시된 2011-2014년도 사이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통계를 보면 총 1,356건의 테러사건 중 497건(36%)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 공격은 154건(11%)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동지역이나 이슬람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경우 민족주의 및 종교의 문제와 같이 극단적으로 국가나 및 민족과 공동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성일광, 2015), 테러리즘을 자행할 때 정치적 입장과 테러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져 대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김중관, 2017). 그러나 유럽과 같이 종교적 이념이나 원리를 표방하는 자생테러 특성이 보이는 기제는 세속적 목표를 가진 테러리즘과 가치구조가 달라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김중관, 2017), 기존 사회의 문제점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길 원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Cronin, 2002).

3. 추세분석

1) 추세분석의 이유

중동최근 유럽 및 북미 등지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과거와는 차별되는 일종의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분명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Cordesman, 2017). 특히 뉴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진 테러사건 중에는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높은

장소나 국제적인 상징성을 내포하는 중심지에서 복합적인 공격 유형을 사용하여 테러를 자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사상자 역시 대규모로 발생한다. 즉, 발생장소 및 공격유형이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타겟 및 수단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Cordesman, 2017).

과거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양상들은 테러리즘에 이해와 대응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추세분석은 9·11테러 이후 발생한 많은 새로운 테러리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성에 대해 논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추세분석의 결과 산출된 일련의 결과를 통해 가급적 그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테러대응 방침을 논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추세분석의 방법

추세를 연구하는 방법은 대부분 문헌검토, 최근 사례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양적자료인 GTD자료를 사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문헌검토와 더불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례기술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례연구는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등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질적 연구방법이다(허경미, 2016). 이 방법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허경미, 2015). 그러나 전반적인 테러사건들을 모두 이해하고 어디든 적용 가능한 추세를 분석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즉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어디든 적용 가능한 추세를 분석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Maxfield & Bobbie, 2008).

2010년 이후 양적연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도 진행되지만 GTD와 같은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분석과 같은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두 요소간의 관계성을 봄으로써 테러리즘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지만(윤민우, 2013; 윤민우·김은영, 2013; LaFree, Morris, & Dugan, 2009),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아직까지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종종 GTD 정보의 한계와 결부되기도 하는데(LaFree et al., 2009) 테러리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자료를 구축한다면 회귀분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선행연구 검토

1) 테러리즘 연구 주제의 변화

국내 테러리즘 관련 연구주제는 시대에 따른 새로운 테러리즘의 형태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대성·김상원(2014)의 대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기 국내의 연구는 1991년-1995년까지 “북한”과 “미약”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1996년-2000년은 “김정일”과 “중동” “인질”, “인질협상”, “국제테러”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이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주로 국제테러리즘은 인질 및 납치와 같은 유형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이대성·김상원, 2014). 그 이후 2001년-2014년까지는 “연구”, “9.11”, “미국”, “경찰” 등이 사용되었다. 즉, 2000년대 초 국내 테러리즘 연구 주제의 대부분은 9·11테러리즘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박형, 2002; 안병진, 2003; 장석현, 2006). 이는 9·11테러리즘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대테러시스템의 보완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찰”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 것을 보아 국제테러가 등장함에 따라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가의 대응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권혜림, 2009; 이태운, 2009; 권정훈, 2010). 특히 국제테러리즘 및 뉴테러리즘의 출현에 대해 그 정의를 규정하고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 주제가 이루어졌다.

종합적으로 2000년대 초 테러리즘 연구는 9·11테러리즘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2010년도 이후에는 그 분석을 통한 뉴테러리즘의 의미 규정이 연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테러리즘의 연구 주제의 변화는 테러형태 및 성격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에 이어서 자생테러와 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성격의 테러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오세연·윤경희, 2016; 박용석, 2015; 허경미, 2016). 과거의 테러유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생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테러대상의 확대와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테러 유형을 주제로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국내 테러대응의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영관·조운오, 2017; 박용석, 2016). 이는 2016년 3월 시행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국내의 테러 대응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테러리즘 연구의 자료 변화

대부분의 테러리즘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테러리즘과 같은 사건은 일반 범죄와는 달리 빈도가 높지 않으며 한번 발생 시 대규모로 발생하여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례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허경미, 2016).

국내 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세연·윤경희(2015)의 연구에서는 IS를 중심으로 발생한 테러 동향 및 공격수단을 문헌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응수(2015)의 연구에서는 파리 테러사건 분석을 통한 IS의 급진화와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외의 분석방법에서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를 다소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결합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용석(2015)의 연구에서는 국정원 테러정세 보고서를 활용하여 최근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종열·김창호(2012)의 연구에서는 각국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사례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외국의 연구 역시 대부분 GTD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테러리즘의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화하였다(Cordesman, 2017; LaFree et al, 2009). 국내에서 양적연구를 진행한 연구(윤민우, 2013; 윤민우·김은영, 2013)를 살펴보면 GTD자료를 활용하여 국제테러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테러리즘의 추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여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전통적 테러리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최근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적 특성의 테러의 추세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분석의 범위

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유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그 변화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 4월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테러리즘의 최근 양태파악을 최우선으로 하는바 상대적으로 형태가 획일화 된 중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배제하였다. 특히 상당 수의 테러사건이 일부 테러집단(ISIL, Al-Qaeda, Boko-haram 등)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 기인하여 해당 집단의 주적으로 여겨지는 서방국가, 즉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테러리즘의 동향분석을 실시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미국적 시각이 팽배한 Global Terrorism Database(GTD)의 한계를 극복 하고 최근 5년간의 테러리즘 유형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테러연보(2012~2016년)를 기본적인 표집틀(Sampling Frame)으로 활용하여 테러의 정의에 대한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7년 연보의 미발행으로 인하여 2017년 사례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월별 테러사건표’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적 범위(북미·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수집하였다.

테러사건 관련 변수의 수치화를 위하여 테러 데이터 부문에서 세계적인 신뢰도를 가진 미국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GTD와 뉴헤븐 대학교(University of New Heaven) 내 위치한 과격집단 연구소(ISVG: Institute for the Study of Violent Groups)의 테러 분류체계 변수를 통합하여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테러연보 및 월별 테러사건표에서 시간적·공간적 범위에 부합하는 사례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사들을 비교함으로써 사건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테러 유형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이 연구에서 테러리즘의 현황 파악을 위해 사용되는 “년도”와 “월”에 해당하는 변수는 모두 사건 발생년도와 사건 발생월로 정의되었다. 또한 테러 발생 국가는 GTD에서 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코드를 이용하여 코딩하였으며, 테러의 원인은 테러사건을 자행한 개인적·집단적 원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선행연구와

GTD 그리고 ISVG에서 대표적인 테러원인으로 지목하는 “1=종교적 갈등”, “2=정치적 갈등”, “3=문화적 갈등”, “4=경제적 박탈감”, “5=인종차별” 으로 세분화하여 명목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추세분석을 위한 공격, 무기, 대상형태 역시 GTD와 ISVG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변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세 변수의 경우 공격, 무기, 대상 형태가 하나 이상인 경우 형태2, 무기2, 대상2 등의 변수를 생성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 테러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격유형은 테러전략을 포함한 모든 공격 유형을 의미하며 “1=요인암살”, “2=운송수단 탈취”, “3=납치”, “4=인질”, “5=폭파”, “6=화기·소이성무기·날카로운 도구로 무장한 공격”, “7=방사능 및 생화학 공격”, “8=방화 및 사보타주 형태의 주요시설 공격(폭발물제외)”, “9=사이버공격”, “10=무기 및 장치 제작”, “11=반달리즘”으로 세분화하여 명목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무기유형은 테러에 사용된 무기의 일반적 형태를 의미하며 “1=생물학”, “2=화학”, “3=방사능”, “4=핵무기”, “5=개인화기”, “6=폭발물”, “7=가짜무기”, “8=방화무기”, “9=근거리무기”, “10=차량”, “11=사보타주도구”, “12=사이버”, “13=기타”로 세분화하여 명목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유형의 경우 “1=비즈니스(식당, 카페, 호텔 등 업무공간 및 직원)”, “2=정부(정부시설 및 공무원)”, “3=경찰(시설·경찰관)”, “4=군(시설·군인)”, “5=낙태(시설·인물)”, “6=공항 및 항공기”, “7=외교”, “8=교육제도(학교·선생·시설)”, “9=국가주요시설”, “10=언론”, “11=해상(항만·시설)”, “12=NGO”, “13=기타”, “14=대중(민간인·다중이용시설)”, “15=종교”, “16=정보통신시설”, “17=테러집단 및 민병대”, “18=여행객”, “19=교통(대중교통)”, “20=에너지시설”, “21=과격정당”, “22=구조물·기념물”등으로 세분화하여 명목형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사상자의 수는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및 테러리스트의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코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북미 · 유럽지역 테러발생 현황

먼저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총 213건으로 나타났다. <표 1>의 연도별 테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발생한 테러는 56건(2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에는 44건(20.66%)이 발생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5년 32건(15.02%), 2016년에 30건(14.08%) 그리고 2012년 29건(13.62%)순으로 테러가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 가능하다. 2017년도는 4월까지 발생한 테러사건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여 최근 북미 및 유럽지역의 테러발생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테러발생 현황 (2012~2017.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빈도	29	44	22	32	30	56
(%)	(13.62)	(20.66)	(10.33)	(15.02)	(14.08)	(26.29)

* Note: 퍼센트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2>는 월별 테러발생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빈도표를 보면 1월~4월에 발생한 테러의 수가 다른 월에 비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2017년도에는 4월까지 발생한 테러 사례만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특히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2017년 사례를 제외한 한 달 평균 테러발생건수는 약 13.1건임을 확인 할 수 있으나, 4월과 11월에 발생한 테러는 각각 8건(5.10%), 5건(3.18%)으로 비교적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월별 테러발생 현황 (2012~2017.4)

월	빈도 (%)	2017년 제외 빈도 (%)
1월	27 (12.68)	15 (9.55)
2월	21 (9.86)	13 (8.28)
3월	28 (13.15)	14 (8.92)

4월	30 (14.08)	8 (5.10)
5월	14 (6.57)	14 (8.92)
6월	12 (5.63)	12 (7.64)
7월	14 (6.57)	14 (8.92)
8월	16 (7.51)	16 (10.19)
9월	18 (8.45)	18 (11.46)
10월	14 (6.57)	14 (8.92)
11월	5 (2.35)	5 (3.18)
12월	14 (6.57)	14 (8.92)
합계	213 (100)	157 (100)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북미 및 유럽지역 중에서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총 16개국이며,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터키(62건)로 총 발생 건수의 약 29.11%가 터키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38건(18.90%)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프랑스(23건, 10.80%), 우크라이나(19건, 8.92%), 미국(17건, 7.98%), 영국(15건, 7.04%)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북미 · 유럽지역 테러 발생국가 (2012~2017.4)

테러 발생 국가	빈도 (%)
오스트리아	1 (0.47)
벨기에	8 (3.78)
불가리아	1 (0.47)
캐나다	2 (0.94)
덴마크	1 (0.47)
프랑스	23 (10.80)
독일	11 (5.16)
그리스	12 (5.63)
노르웨이	2 (0.94)
러시아	38 (18.90)
스페인	1 (0.47)
스웨덴	2 (0.94)
터키	62 (29.11)
우크라이나	19 (8.92)
미국	17 (7.98)
영국	15 (7.04)
합계	213 (100)

2. 북미 · 유럽지역 테러리즘 발생 추세변화

정치적 갈등이 테러리즘 활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테러가 87건(5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종교적 갈등 70건(43.21%), 인종차별 4건(2.47%), 그리고 문화적 갈등 1건(0.6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표 3>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분리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 등으로 인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터키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하여 정치적 갈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종교적 갈등이 약 43.21%를 차지하는 것은 최근 자행되는 테러의 패턴을 볼 때, ISIL등의 테러리즘 단체 소속단원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거나 ISIL 등 급진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lone wolf)’의 자행으로 발생하는 테러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가능하다(Cordesman, 2017).

<표 4> 테러발생 원인 추세(2012-2017.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합계
종교적 갈등	4 (5.71)	11 (15.71)	9 (12.86)	9 (12.86)	24 (34.29)	13 (18.57)	70 (100)
정치적 갈등	14 (16.09)	23 (26.44)	4 (4.60)	12 (13.79)	1 (1.15)	33 (37.93)	87 (100)
문화적 갈등	-	1 (100)	-	-	-	-	1 (100)
인종차별	1 (25.0)	-	-	-	-	3 (75.0)	4 (100)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테러리즘은 2016년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테러리즘은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에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에 무정부주의 및 분리주의자 등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하는 터키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테러리즘은 발생지역이 매우 다양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발생지역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종차별에 의한 갈등은 2017년 들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인종이 달라 테러리스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융화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유형인 폭파(bombing/explosion)을 이용한 공격이 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무장공격(armed assault)를 이용한 공격유형이 77건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요인암살이 15건, 비무장공격 6건, 납치와 인질이 각각 4건, 운송수단탈취와 주요시설공격이 각각 3건씩 발생하였다.

<표 5>의 공격 형태에 있어서 연도별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격방법인 폭파는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격유형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폭파가 4건, 무장공격이 11건 발생하여 무장공격유형이 더 많이 발생한 이후 매년 서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납치의 경우 2013년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요시설 공격유형 또한 2015년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들어서면서 비무장공격을 사용한 공격도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테러의 모든 공격유형 중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탈취·이용한 공격 형태는 3건에 불과하여 발생빈도는 낮으나, 피해의 거대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표 5〉 테러리즘 공격유형 추세(2012~2017.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합계
요인암살	3 (20.0)	2 (13.33)	2 (13.33)	2 (13.33)	2 (13.33)	4 (26.67)	15 (100)
운송수단 탈취	-	-	1 (33.33)	2 (66.67)	-	-	3 (100)
납치	3 (75.0)	1 (25.0)	-	-	-	-	4 (100)
인질	-	1 (25.0)	1 (25.0)	1 (25.0)	1 (25.0)	-	4 (100)
폭파	16 (17.02)	26 (27.66)	4 (4.26)	10 (10.64)	13 (13.83)	25 (26.60)	94 (100)
무장공격	6 (7.79)	7 (9.09)	11 (14.29)	14 (18.18)	12 (15.58)	27 (35.06)	77 (100)
비무장 공격	-	2 (33.33)	2 (33.33)	-	2 (33.33)	-	6 (100)
주요시설 공격	1 (12.5)	5 (62.5)	1 (12.5)	1 (12.5)	-	-	8 (100)

* Note: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공격형태(1st)를 기준으로 작성.

최근 5년간 발생한 테러에 사용된 무기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가능하다. 역시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가 101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개인화기를 공격수단으로써 이용한 테러가 63건, 근거리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2건, 방화무기 11건, 차량을 공격 수단으로 이용한 테러가 6건, 화학무기가 3건 발생하였다.

<표 6>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2012년 이후 매년 폭발물이 테러 무기유형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화기와 차량을 수단으로 이용한 테러는 201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6년 프랑스 니스테리이후 이와 유사한 차량을 공격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방성 테러가 많이 발견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테러리즘 무기유형 추세(2012~2017.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합계
화학무기	-	3 (100)	-	-	-	-	3 (100)
개인화기	9 (14.29)	6 (9.52)	5 (7.94)	13 (20.63)	7 (11.11)	23 (36.51)	63 (100)
폭발물	18 (17.82)	27 (26.73)	4 (3.96)	14 (13.86)	13 (12.87)	25 (24.75)	101 (100)
방화무기	-	5 (45.45)	2 (18.18)	1 (9.09)	1 (9.09)	2 (18.18)	11 (100)
근거리 무기	-	3 (12.0)	8 (32.0)	2 (8.0)	8 (32.0)	4 (16.0)	25 (100)
차량	-	-	3 (50.0)	-	1 (16.67)	2 (33.33)	6 (100)

※ Note: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무기형태(1st)를 기준으로 작성.

최근 북미·유럽지역에서 발생한 213건의 테러 가운데 일반대중 및 공공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이 공격 대상이 된 테러가 49건, 정부·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34건, 군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25건, 레스토랑, 카페 등 비즈니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는 13건, 기타(학교 및 교육시설, 언론, 종교인물 및 시설,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과격정당원 및 시설, 여행관련

시설 등 포함)는 30건이 발생하였다.

공항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의 경우 항공기 납치를 1차적 목표로 삼은 후 납치에 성공한 경우 이를 도구화하여 2차 목표를 타격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을 야기하여 단순히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비즈니스 및 교통 시설 등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권현식, 2016).

오세연·윤경희(2016)를 포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인구밀도가 높은 공항, 대중교통시설, 시청, 식당 등의 지역 또는 상업성을 대표할 만한 시설을 겨냥하는 연쇄 테러로 인해 목표물이 연성화(soften)되는 경향이 있다(오세연·윤경희, 2015; 이상열, 2015; 정육상, 2015).

이러한 추세는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군, 경찰, 정부 및 외교시설을 제외하면 전체 테러의 약 48.3%(103건)의 테러가 민간인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테러 대상 추세(2012~2017.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합계
비즈니스	1 (7.69)	3 (23.08)	2 (15.38)	1 (7.69)	2 (15.38)	4 (30.77)	13 (100)
정부·외교	4 (11.76)	14 (41.18)	3 (8.82)	4 (11.76)	1 (2.94)	8 (23.53)	34 (100)
경찰	11 (22.45)	10 (20.41)	4 (8.16)	5 (10.20)	9 (18.37)	10 (20.41)	49 (100)
군	7 (28.0)	2 (8.0)	1 (4.0)	5 (20.0)	1 (4.0)	9 (36.0)	25 (100)
공항·항공기	-	-	1 (20.0)	1 (20.0)	2 (40.0)	1 (20.0)	5 (100)
대중·공공 장소	2 (3.64)	7 (12.73)	7 (12.73)	12 (21.82)	9 (16.36)	18 (32.73)	55 (100)
기타	3 (10.0)	8 (26.67)	4 (13.33)	3 (10.0)	6 (20.0)	6 (20.0)	30 (100)

※ Note: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대상형태(1st)를 기준으로 작성.

이러한 변화는 테러로 인한 사상자의 수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표 8>의 사상자 수 변화추세를 보면 2012년에 29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그보다 적은 22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자의 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역시 2013년 보다 적은 수의 테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의 수는 2배를 훨씬 웃도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상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며 테러가 대규모화 되고 목표물이 연성화(soften)되는 뉴테러리즘의 양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8> 사상자 수 추세(2012~2017.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합계
전체 사망자 수 (명)	159	109	392	591	389	143	1,783
전체 부상자 수 (명)	350	528	320	985	1,348	278	3,799
합계 (명)	509	623	712	1,576	1,732	421	5,582

테러 대상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인 테러가 46건으로 나타나 단순히 특정 시설이나 기관 또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보다는 여러 대상을 한 번에 공격하는 복합적인 성향을 띠는 케이스들이 2017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공간적 복합테러의 성격을 가진 테러는 27건으로 전체 테러사건 중 12.68%에 해당하는 테러가 수단과 공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테러는 2013년에 8건(29.6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 7건(25.93%),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4건(14.81%), 2014년에 1건 발생하였다. 한편 2017년 4월까지의 3건의 복합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북미·유럽지역에 발생한 복합테러 추세(2012~2017.4)

테러 형태	시공간적 복합테러 (%)	대상이 복합적인 테러 (%)
2012	4 (14.81)	6 (13.04)
2013	8 (29.63)	9 (19.57)
2014	1 (3.70)	2 (4.35)
2015	7 (25.93)	9 (19.57)
2016	4 (14.81)	7 (15.22)
2017	3 (11.11)	13 (28.26)
합계	27 (100)	46(100)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북미·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발생원인은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적 갈등의 경우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적 갈등에 의한 테러의 경우 민족분리주의, 무정부주의 등을 표방하는 한정된 지역(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테러연보(2012~2016년)와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월별 테러사건표’를 기본 표집틀로 하여 공간적 범위(북미·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는 총 213건의 테러리즘 사례 중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오던 폭파, 무장공격 등의 공격 유형이 여전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무기유형 역시 비슷하게 폭발물, 개인화기, 차량공격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화약류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우나 최근 연세대 텀블러폭탄사건 등 사제폭발물 등에 의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세자폭발물에 대한 테러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김희수·이주영, 2017)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대책마련을 마련하여 환경부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⁴⁾을 2011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격유형 중 차량공격의 경우 2016년 프랑스 니스테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리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됨으로써 기존의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던 테러에서 벗어나 피해지역이 보다 넓어지고 사상자가 대규모화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도 충분히 위험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은호, 2017).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테러공격 유형, 수단의 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일종의 유사성을 보이는 듯하다. 공격유형 및 무기유형이 두 개 이상으로 혼합되거나 대상 또한 특정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대규모의 인명을 살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최근 테러리즘의 동향이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테러리즘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기사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제한된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었음으로 누락된 변수가 많은 점, 그리고 2017년도 사례는 국가정보원의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로 위키피디아의 ‘월별 테러사건표’에 근거하여 사례를 수집한 점,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북미와 유럽지역에 한정했다는 점 등이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GTD와 같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테러리즘 동향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데이터가 아닌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테러 동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4) 박영복. (2016.07.27.)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출범”.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71753785592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참고문헌

- 강영숙 (2016). 「테러학」, 인천: 진영사.
- 경찰대학. (2009). 「경찰경비총서」, 용인 경찰대학
- 권정훈. (2010).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대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3), 231-253.
- 권현식. (2016). 항공테러 대비 공항운영자 및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연구: 항공보안검색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3), 325-354.
- 권혜림. (2009).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9-56.
- 김은영. (2014).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달알카에다 중심화와 보코하람, IS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185-212.
- 김우수. (2015). 파리 테러사건 분석을 통한 Islamic State의 급진화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8(4), 27-52.
- 김종열·김창호 (2012).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 81-101.
- 김중관. (2017). 터키·유럽의 테러리즘 사례 분석: 이슬람 지하드 중심의 접근. 한국경찰학회보, 64, 3-33.
- 박용석. (2016). 최근 테러범죄 실태분석과 주요국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 83-110.
- 박철현. (2010).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4(단일호), 61-89.
- 박형. (2002). 국제테러의 원인과 배경; 9.11 테러-그 원인.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45(1), 71-97.
- 안병진. (2003).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국제정치논총」, 43(4), 59-80.
- 오세연·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277-308.
- 오세연·윤경희. (2016). 자국내 IS 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겟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7, 87-117.
- 윤민우. (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317-347.
- 윤민우·김은영. (2013). 폭탄테러의 경향성분석: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

- 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경찰연구」, 12(4), 279-310.
- 윤민우. (2014).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경찰학논총」, 9(3), 221-241.
- 윤민우. (2017). 해외테러리즘 최근동향과 국내 테러발생 위험성 예측·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1), 123-158.
- 이대성·김상원.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경찰청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3), 296-314.
- 이상열. (2015).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51(단일호), 95-126.
- 이승근. (2016). 유럽 테러사태와 한반도 안보질서. 「한국유럽학회」, 34(4), 363-392.
- 이태윤. (2009). 초국가적 위협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연구-핵테러의 발생가능성: 현황·전망·대안. 「국가위기관리연구」, 3(2), 1-35.
- 장석현. (2006).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65-92
- 정육상. (2015).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유럽헌법연구」. 18, 171-198.
- 조성택. (2010). 1990년대 이후의 중동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대응. 「한국치안행정학회」, 7(3), 89-110.
- 조성택·김진정. (2014). 민족,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 「한국테러학회보」, 7(4), 203-221.
- 최영관·조윤오. (2017).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3, 203-229.
- 히경미. (2016). 자생테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노르웨이 오슬로 및 보스턴 마라톤테러범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4), 217-250.
- 형사정책연구원. (2016).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 Ahn, T. (2014).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Terrorism Regime“. *Gachon Law Review*, 7(1), 151-188.
- Cordesman, A. H. (2017). “The Patterns in Global Terrorism: 1970-2016”,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Cronin, A. K. (2002). “Behind the Curv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errorism”, *Quarterly Journal: International Security*, 27(3): 30-58.
- Kaplan, J. (2011). “The new/old terrorism. In Phi Kappa Phi Forum”, *National Forum: Phi Kappa Phi Journal* 91(3), 4.
- Lafree, G., Morris, N. A., & Dugan, L. (2009). “Cross-national patterns of Terrorism: Comparing trajectories for total attributed and fatal attacks”, 1970-2006”.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4), 662-649.

- Laquer, W. (1999). *The New Terrorism: Fanaticism and the Arm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xfield, M. G., & Babbie, E. R. (2009). *범죄학 연구방법론* (박정선·곽대건·김상원·박철현·신동준·이민식·이웅혁, 역). 서울: CENGAGE LEARNING. (원서출판: 2008).
- Rapoport, D.(2004). Four Waves of Rebel Terror and September 11. In Audrey Cronin & James Ludes(Eds.). *Attacking Terroris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Abstract】

Tracking Recent Terrorism Trend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Park, Gi-Bbeum · Lee, Chang-Han · Yu, Hyo-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eneral trends in recent terrorism in North America and Europe over the last five years. In particular the terrorism which occurred after 2012 shows the transition in trends as terrorists attacks civilians and public places(soft target) rather than targeting national facilities or specific people. For instance, the Parris terror attack and Barcelona vehicle attack shows this changes clearly. The terrorists appeared to attack ordinary people in urban plac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lthough the trends are changing, there are still few studies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hanging in strategies and counter-terrorism in each country after the 9.11 terror. Meanwhile, studies examining the trends of terrorism have been limited to analyzing few cases or using relatively monolithic data of Global Terrorism Data(GTD). While the types of terrorism that occur recent years including 'new terrorism' in many respect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classify with GTD data and/or case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new data that perhaps grasp the recent trend of terroris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this point of view, this Based on this, this study collects terrorism data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for the past five years, by us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nnual report on terrorism as a sampling framework and analyse the trends and changes. The result shows similarities in the methods of attack, and the type of weapon they used. As vehicle attacks has been raised in few years, damage area has been widen and casualties also have been increased.

Keywords: Terrorism, Terrorism trend, International Terrorism, Terrorism types, changes in terrorism